

마이클 세스와 한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해석 비교

나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고전번역학 전공
e542919@aks.ac.kr

- I. 머리말
- II. 고조선
- III. 한군현
- IV. 고구려와 발해
- V. 가야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를 40여 년 동안 연구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아시아언어학부의 존 던컨(John Duncan)은 “전근대 한국에 관한 미신과 진실(Myths and Truths about Premodern Korea)”¹⁾이라는 강연에서 ‘반만년의 한국 역사’, ‘단일민족’, ‘외부침략을 받은 수난의 역사’라는 진술이 미신 또는 반(半)사실이라고 단언했다.²⁾ 존 던컨 외에 한국사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로는 제임스 매디슨대학(James Madison University) 역사학부의 마이클 세스(Michael J. Seth)를 들 수 있다.

마이클 세스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유럽사를 전공하여 「밀라노와 베를린 칙령에 대한 미국의 반응(The U.S reaction to the Milan and Berlin Decrees)」이란 제목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썼다. 그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1980년부터 5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이후 귀국하여 한국학 연구가 활발한 하와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근대사와 유럽 근대사를 연구했으며, 『이승만 정권하의 교육과 정치(Education and Politics under Syngman Rhee)』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교육과 한국 역사에 관해 5권의 저서와 4편의 논문 및 에세이를 발표했다.³⁾ 근래에는

1) John, Duncan, “Myths and Truths about Premodern Korea”(USC Korean Studies Institute Public,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mPEcszPd9T8>

2) 존 던컨은 강연 중에 한국뿐 아니라 “이집트도, 중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다(Nobody has 5,000 years of history, not the Egyptian, not the Chinese, nobody)”라고 말했다. 5,000년이란 신석기시대까지 소급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숫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화적 연속성(Cultural Continuity)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사가로서 5,000년의 역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단일민족(Unitary Ethno-Nation)’이나 ‘순수한 인종(Pure Race)’이란 개념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한국인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대종교 창시자들에게서 비롯되었는데 단군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몽골, 중앙아시아, 일본 출신인 한인(韓人)과 사할린 한인(Sahalin Koreans)이 ‘순수한 인종’을 반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는 오히려 장기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예외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 말까지, 11세기 초기에서 13세기 중기까지,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기까지 무려 200-300년이란 기간을 주기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번 러시아와 독일의 침략을 받은 폴란드와는 대조적이라고 한다.

3) Michael Seth,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한국사: 고대에서

한국 근대사에 관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쓴 에세이를 편집했으며, 현재 북한에 관한 도서를 집필 중이다.⁴⁾

이 글에서는 마이클 세스의 저서들 중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고대에서 현재까지(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외국인의 역사 서술을 고찰할 것이다. 외국인 학자가 저술한 한국사 개론의 성격을 지닌 책 중에 가장 최근에 출판된 이 책은 과거부터 최신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작일 뿐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으로 한국사를 서술한 독특한 책이기도 하다.⁵⁾ 그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현재까지)(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1); Michael Seth,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간추린 근대 한국사: 19세기에서 현재까지)(Boulder, Co: Rowman and Littlefield, 2009); Michael Seth, *A Concise History of Korea: From the Neolithic to the Nineteenth Century*(간추린 한국사: 신석기시대에서 19세기까지)(Boulder, Co: Rowman and Littlefield, 2006); Michael Seth, *Education Fever: Politics, Society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교육열: 남한의 정치, 사회, 그리고 학벌 추구)(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Michael Seth, "Myth, Memory and Reinterpretation in Korea: The Case of Tan'gun"(한국의 신화, 기억과 재해석: 단군의 경우)(in Chinese),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Collected Papers of the Study of Korea XXII*(2013), pp. 113-123; Michael Seth, "An Unpromising Recovery: South Korea's Post-Korean War Economic Development: 1953-1961"(가망 없는 회복: 남한의 전후(戰後) 경제 발전: 1953-1961), *Education about Asia* 18.3(Winter 2013), pp. 42-46; Michael Seth, "Is Korean Education a Model?"(한국교육은 과연 모델이라 할 수 있는가?)(in Korean), in Segye ui Sokhak-dul, han'guk ui mirae-rul malhada [Looking at Korea's Future: The Views of International Scholars], Emanuel Pastreich, editor(Seoul: Dasan, 2013), pp. 82-93; Michael Seth, "Education Zeal, State Control and Citizenship in South Korea"(남한의 교육열정, 국가 통제와 시민), *Citizenship Studies* 16.1(February 2012), pp. 13-28; Michael Seth, "Educational Exceptionalism"(교육적 예외주의) in Nancy Abelmann, Jung-ah Choi and So-jin Park editors, *No Alternative?: Experiments in South Korean Education*(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4) An email from Michael Seth on Sept. 22, 2015: "I am just finishing editing a book of essays on modern Korean history by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and am writing a book on North Korea and another on world history."

5) 마이클 세스는 황경문의 『한국사(A History of Korea)』(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에 대한 서평에서 그 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책의 심각한 한계는 (한국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더 넓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적 정세 속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이웃 나라들의 관계는 매우 중대하기에, 우리는 중국, 일본, 그리고 내륙아시아 내(內)의 보다 더 큰 변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 영토에서 형성되는 사건들 속에서 주변국들이 한국과 한국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유학이 발흥한 초기 국가 형성에서부터 조공(朝貢) 체제 붕괴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전개 과정들은 한국이 더 큰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위치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A more serious

그러한 인식이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⁶⁾ 또한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계적 시각으로 보는 한국(Korea in Global Perspective)’이란 장을 따로 두어 세계사 내(內)에서 한국의 위치를 비정(比定)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마이클 세스와 같은 미국 학자의 저서를 토대로 한국사를 살펴보려는 것은 그의 학문이 국내 학자의 학문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한국을 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함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학자가 아닌 미국 학자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함은 중국이나 일본이 지닌 편견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일찍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영토편입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동북공정(東北工程)⁷⁾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⁸⁾이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⁹⁾

limitation of the book is that it does not place most events in their wider regional and global context. So important is the relationship of Korea with its neighbor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broader changes in China, Japan, and Inner Asia to appreciate how they impacted Korea and the country’s role in shaping events in the region. Developments from the early state formation to the rise of Neo-Confucianism to the collapse of the tribute system only make sense if situated into the larger story of East Asian and world history).”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jn_015_0070.pdf

- 6) Michael Seth, 앞의 책(2011), p. 24.
- 7)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동북변강역사·역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라는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5년간 추진한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 지역 연구 프로젝트로서, 각종 학술 연구를 통해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작업이다.” 이만열, 『역사의 중심은 나다』(현암사, 2007), 230쪽.
- 8) “2003년 6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학회에선 고구려를 완전히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선언적 논문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확정하고 중국 국내의 민족 관계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중국 학자들은 ‘중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차고이래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를 심화시켜가고 있는 형편이다. 위의 책, 231쪽.
- 9) “임나(任那)는 대가야 지방을 가리킨다. 대가야는 오늘날의 경북 고령 지방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고령 지방에 있던 대가야를 정벌하고, 거기에 총독부와 같은 식민지 지배 기구를 설치하여 다스렸다는 것이다. 그 기간은 대체로 369년에서 562년까지라 한다. 369년은 그전부터 남조선에 쳐들어온 군대가 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시기다. 562년은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해로서, 대가야가 멸망하자 일본부도 결국 타멸되었다는 것이다.” 이만열, 『우리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바다출판사, 2000), 286-287쪽.

과 같은 자국 중심적 편견을 역사 서술에 개입한 적이 있다. 따라서 영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의 한국 고대사 서술은 좀 더 객관성을 가진 기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마이클 세스의 관점을 택한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마이클 세스의 관점과 더불어 자국민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 종¹⁰⁾과 비교·대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¹¹⁾ II장에서는 고조선, III장에서는 한군현, IV장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가야를 고찰할 것이다. 고대사의 다른 부분보다 이 네 부분에서 역사 해석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기에 이 부분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고조선

고조선에 대하여 교과서와 마이클 세스가 서술한 해석을 비교해보면 고조선의 성립 시기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국정교과서가 “고조선은 단군왕검(檀君王儉)에 의하여 건국되었다고 한다(B.C. 2333)”¹²⁾라고 서술한 것과 달리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는 고조선의 성립 시기를 기원전 10세기 이후, 즉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10)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금성출판사, 2014).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이 있다. 그중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성교과서 한국사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선정되어 수업 교재로 쓰이는 순위가 8개 중 네 번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부의 세부 지침을 따라 내용이 선정되고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들과 큰 내용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글의 비교연구가 고대사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가급적 전근대의 역사 서술이 가장 많은 금성교과서를 채택하였다. 8종 교과서의 전근대 역사 서술의 평균 쪽수가 170쪽인 데 비해 금성교과서는 201쪽에 달한다. 최준재,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교육부, 2014), 107쪽.

11) 이렇게 한국사 해석에 관한 서구인의 시각과 자국민의 관점이 지닌 차이점을 기술한 선행연구로는 인도 출신 한국사학자인 판카즈 모한(Pankaj Mohan)의 「서구학계와 한국학계의 한국 고대사연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한국고대사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서양 학자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한국 고대사 기본 사료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분석했다. 1차 사료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판카즈 모한의 연구와는 달리 이 글은 2차 사료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판카즈 모한, 「서구학계와 한국학계의 한국 고대사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2집(2011), 195-220쪽.

1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교육부, 1996), 27쪽.

마이클 세스는 고조선의 기원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성립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으며, 다만 고조선이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를 기원전 109년으로 보고 있다. 두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인용문에 기술한 바와 같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원전 24세기라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다.(한국사 교과서)¹³⁾

비록 후세에 기록된 일부 한국 역사서들이 그 국가(고조선)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주장할지라도, 조선이라고 불린 정치적 실체에 대한 가장 이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시기는 기원전 109년이다. 그 시기에 한무제(漢武帝)의 통치하에 있었던 중국이 조선을 공격하고 정복했던 것이다. 이 조선의 기원과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마이클 세스)¹⁴⁾

교과서는 출토된 고조선의 유물이 대부분 청동기라는 사실(事實)을 근거로 고조선의 성립 시기를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기원전 10세기 이후로 보고, 마이클 세스는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했다는 사실(史實)을 근거로 고조선의 존재 시기를 기원전 109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대한 차이점은 교과서가 고조선의 성립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술한 반면, 마이클 세스는 기원이 불분명한 고조선의 성립 시기를 비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조선의 국가 지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자. 교과서는 고조선이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반면, 마이클 세스는 고조선이 국가 체제를 지닌 나라였음을 부정한다.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13) 김중수 외, 앞의 책(2014), 29쪽.

14) “Although some later Korean histories would assert that the state was founded by Tan’gun in 2333 BCE, the earliest uncontested date for a political entity called Chosŏn is 109 BCE. At that time, the Chinese, under Emperor Han Wudi, attacked and conquered Chaoxian, or Chosŏn. Almost everything about the origin and nature of this Chosŏn is obscure.” Michael Seth, 앞의 책(2011), 17쪽.

고조선은 일찍부터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기원전 3세기에는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 상, 대부, 장군 등과 같은 관제도 갖추었다. 특히 중국의 연(燕)과 맞대결을 벌이고, 한의 대군을 물리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한국사 교과서)¹⁵⁾

고조선은 한 국가라기보다는 한 부족 연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본래는 남만주에 위치해 있다가 평양 근처로 추정되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했던 고조선은 (왕검)성이 중국인들에게 포위당한 이후에 멸망했을 것이다.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글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마이클 세스)¹⁶⁾

교과서는 고조선이 왕권 세습 전통과 세분화된 관제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일찍부터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하는 반면, 마이클 세스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지나 반즈(Gina L. Barnes)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¹⁷⁾를 토대로 고조선이 한 부족 연맹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셋째, 교과서는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마이클 세스는 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고조선이 어떻게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 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대 한국인들은 고조선을 그들 국가의 조상으로 본다. 그러나 고조선을 어느 특정한 민족 집단이나 문화권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고조선이 지닌 주된 역사적 중요성은 중국인들을 한국과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¹⁸⁾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고조선을 대한민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내용을

15) 김종수 외, 앞의 책(2014), 31쪽.

16) “It was likely to have been more a tribal federation than a state. Perhaps originally located in southern Manchuria, it fell after the Chinese besieged a fortress located in northern Korea, probably near P’yŏngyang. The people of the Chosŏn were most likely illiterate.” Michael Seth, 앞의 책(2011), 17쪽.

17) 마이클 세스는 지나 반즈(Gina L. Barnes)의 저서를 참고했음을 미주에 밝히고 있다. 위의 책, 508쪽.

18) “Modern Koreans see ancient Chosŏn as an ancestor to their nation,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linking it with any particular ethnic group or culture. Its chief historical importance is that it brought the Chinese into direct involvement in Korea.” 위의 책, 17쪽.

통해 어떠한 증거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676년 이전에는 어떤 독특한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집단이나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모든 역사적 증거가 시사(示唆)한다. 심지어 676년에 정치적으로 연합된 국가(신라)가 성립된 이후에도 국가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한반도에 있던 한국(신라)과 만주 사이에 있는 문화적·민족적 경계도 여전히 불분명했다.

역사적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거로 소급하여 현대인들이 자신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투사하는 것은 흔한 경향이다.¹⁹⁾

676년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이전에는 독특하게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된 집단이나 일관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클 세스는 고조선을 현대 대한민국과 연결 지을 수 없다고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러한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고조선 때부터 단일한 정치적 틀 안에서 구별된 민족들로서 존재했다고 그들 역사의 유구성을 합리화하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과거에 투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마이클 세스는 비판한다.²⁰⁾

III. 한군현

한군현(漢郡縣)에 대한 마이클 세스의 관점이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두 저서의 목차를 비교해놓은 표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는 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성장한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을 중심으로 목차가 구성되고 한군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19) “Yet all the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that no distinctive “Korean” ethnic group or culture existed before this, and even after political unity in 676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all within the state shared the same language and identity. Moreover, the cultural and ethnic boundary between peninsular Korea and Manchuria was still a blurred one at best. It is a common tendency for modern peoples to project their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further back into the past than can be reasonably supported by historical evidence.” 위의 책, 25쪽.

20) 위의 책, 25쪽.

표1-목차 비교

한국사 교과서	마이클 세스의 한국사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7. 한군현(The Chinese Commanderies)
철기 문화의 확산과 여러 나라의 성장	8. 한군현과 그 주변: 북방민들 (Chinese Commanderies and Their Neighbors: The Northern Peoples)
부여의 건국과 사회 모습	9. 한군현과 그 주변: 남방민들 (Chinese Commanderies and Their Neighbors: The Southern Peoples)
고구려의 건국 과정	10. 3세기의 정치 구도 (Politics of the Third Century)
고구려 초기의 정치 체제와 영역 확장	
옥저와 동예의 성장	
옥저와 동예의 사회 모습	
삼한의 형성과 정치적 성장	
삼한의 사회 모습과 대외 교류	

수 없는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한군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북방민과 남방민으로 목차를 구성했으며,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과 같은 나라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용어 색인(찾아보기)란에 한군현 또는 한사군(漢四郡)이란 단어가 없다.

둘째, 교과서 본문에서는 한군현이 네 번 언급되는데, 각각의 묘사를 살펴보면 한국 고대국가의 성장을 저지(沮止)하거나 통제하는 존재로, 또는 우리 역사의 강한 힘에 쫓겨나고 쇠퇴·소멸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 (1)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의 산간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이 지역은 청동기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는데,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 세력들은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이 이 지역에 현도군을 설치함에 따라 정치적 성장을 잠시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집단은 현도군을 몰아내면서 더욱 큰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그 뒤 부여 방면의 유·이민 집단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²¹⁾
- (2) 고구려는 일찍부터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서쪽으로 현도군을 몰아내고 요동 동부 산간 지대를 장악하였으며……²²⁾
- (3) 옥저와 동예 […] 두 나라는 한군현의 통제를 받다가 고구려에 복속되어 공물을 바쳤다.²³⁾
- (4) 중국 대륙의 혼란을 피해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고, 이 지역의 중국 군현은 쇠퇴하다가 마침내 소멸하였다.²⁴⁾

21) 김종수 외, 앞의 책(2014), 33쪽.

22) 위의 책, 34쪽.

23) 위의 책, 34쪽.

24) 위의 책, 39쪽.

요약하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군현의 존재는 (1)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을 저지하는 존재, (2) 고구려의 영역 확장으로 쫓겨난 존재, (3) 옥저와 동예를 통제한 존재, (4) 한반도에서 쇠퇴하다가 소멸한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더 알아보기>란에 보충 설명한 한군현은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고조선 지역에 한의 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세력은 고조선 외곽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한군현 중 대동강 유역에 설치된 낙랑군은 장기간 존속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²⁵⁾

이렇듯 교과서는 한군현이 한반도에 미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소개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면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클 세스는 한군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군현의 설립은 한국사의 발전에 중요하다. 한군현은 한반도의 부족들을 중국의 진보된 문명에 직접적으로 접촉시켜주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러 부족들을 중국화시키는 과정이 착수된 셈이다. 한군현의 설립과 더불어, 한반도의 여러 부족들은 광대한 한(漢) 제국과 연결된 무역망과 문화적 유대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 제국은 화북(華北) 평원을 기점으로 해서 양쯔강을 지나 남쪽의 베트남까지,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까지 그 세력을 뻗어나갔다. 그러므로 한국 역사는 동아시아사라는 더 큰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다.²⁶⁾

교과서에서 한군현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마이클 세스는 한군현의 설립이 한국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한군현을 통해 비로소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입장에서 서술한 교과서와 타국의 입장에서 서술한 마이클 세스의

25) 위의 책, 30쪽.

26) “The creation of the Chinese commanderies is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anderies, the various peoples of the peninsula became involved in a web of trade and cultural ties that connected them with the vast empire of the Han. The Han Empire radiated out from its base in the North China Plain to the Yangzi and southward to Vietnam, and from the Pacific coast to the oases of Central Asia. Thus Korean history became a part of a larger history of East Asia.” Michael Seth, 앞의 책(2011), 18쪽.

해석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외세 침략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군현은 아무리 곁게 보아도 문명 전달이라는 미명하에 통제와 지배를 합리화하는 성가신 존재임이 분명하고, 타국의 입장에서 한군현은 피침략국의 심정은 어떻든지 선진 문명을 한반도에 전달하여 거대한 문명권 형성에 기여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군현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 문물이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된 것 같아 이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이 문명권과 연결되어 문화의 교류가 가능하려면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한자이다. 한군현이 한반도에 설치된 이 시기에 한자가 대거 유입되었을 것이다.²⁷⁾ 교과서 71쪽에는 동아시아 지역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활발하게 교류하였기 때문”이며, “삼국이 한자와 유학을 수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부터 한자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한군현과 한자전래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비로소 한자 문화권이 형성된 역사적 원인이 분명해질 것이다.

IV. 고구려와 발해

우선 고구려의 발생 시기와 통치 형태를 교과서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그러나 이 지역 주민 집단은 현도군을 몰아내면서 더욱 큰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그 뒤 부여 방면의 유·이민 집단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기원전

27) “지금 한국어에서 한자어휘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어휘에서도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한자가 언제 한반도에 전래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류 역사를 통하여 한자의 전래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한우제(漢武帝)가 B.C. 108년에 한반도 지역에 漢四郡을 설치한 이후에 한자가 대거 유입되었을 것이며……”(최영애, 『한자학강의』, 통나무, 2000, 31쪽). “기원전 1세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설치는 한반도까지 그리고 다시 일본열도로 한자문화가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이성규, 「한국 고대 국가의 한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집, 2003, 57쪽).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는 “삼국사기”의 주몽 설화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²⁸⁾

고구려는 1세기에 이미 왕호를 사용하였다. 왕 아래에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료 조직이 있었는데, 5부의 대가들도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거느리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다.²⁹⁾

위 내용을 통해 교과서는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여 고구려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37년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고구려를 최소한 1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클 세스는 왕의 칭호를 통해 고구려가 주권국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교과서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만, 고구려가 현도군을 몰아낸 이후에도 여전히 서기 12년까지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발생 시기도 다르게 보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기원전 75년부터 서기 12년까지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그 후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훈장(渾江)에 부족 연맹을 설립했다. 그리고 통치자는 자신을 왕으로 칭했다. 그것은 그가 단지 봉건 귀족이라는 종속된 신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권국의 통치자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표시였다.³⁰⁾

마이클 세스는 고구려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를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보다 38년이 앞선 기원전 75년부터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서(漢書)』에 “기원전 75년 현도군의 치소를 구려(句麗) 서북의 소자하(蘇子河) 방면으로 물리쳐 한군현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났다”³¹⁾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後漢書)』에 ‘이맥(夷貊)’이란 이름으로 이미 기원전 37년 이전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

28) 김종수 외, 앞의 책(2014), 33쪽.

29) 위의 책, 34쪽.

30) “From 75 BCE to 12 CE the Koguryŏ paid tribute to the Chinese. Then they established a tribal federation, in the Hun River, a tributary of the Yalu; and the ruler began to call himself *wang*, or king, a sign that he no longer accepted subordinate status as a mere marquis but wished to be treated as the ruler of a sovereign state.” Michael Seth, 앞의 책(2010), 21쪽.

31) 여호규, 『한국사 5』(국사편찬위원회, 1996), 24쪽.

다.³²⁾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 규모를 갖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설명대로 ‘지역주민 집단’으로 먼저 등장한다. 그러다가 이 지역주민 집단이 현도군을 몰아낸 후 고구려라는 국가를 세운 것이다. 마이클 세스가 그러한 세심한 구분 없이 고구려라는 통일된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교과서는 건국 이전의 지역주민 집단과 건국 이후의 고구려라는 정치 집단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교과서가 대략 기원전 37년을 고구려라는 ‘국가’가 세워진 건국 시기로 인정하는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고구려가 서기 12년 이후에야 부족 연맹으로 설립되었다고 기술한다. 즉, 교과서는 고구려가 기원전부터 국가 단위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반면, 마이클 세스는 서기 이후에도 고구려는 여전히 부족 연맹 단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신앙과 제의(祭儀)를 통해 교과서와 마이클 세스의 관점이 지닌 차이점을 고찰해보자.

…… 국왕의 주도로 매년 10월에 수도에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5부의 결속력을 다지기도 하였다. 제천 행사와 같은 공식 모임에서는 대가와 소가의 옷차림이 구별되어, 지배층의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교과서는 고구려의 제의를 통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구려의 통치 체제를 서술하고 있으며, 마이클 세스는 고구려의 제의가 아닌 종교를 통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고구려 유민(流民)의 기원을 유추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종교는 스텝지대 유목민의 그것과 유사한 점성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고구려인들 자체가 스텝지대 유목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종교는 또한 “지하도(地下道)의 영(靈)”, 그리고 강(江)들과 다른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것을 포함했다. 우리는 또한 고구려가 연나부(椽那部) 또는 소노부(消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와 같은 다섯 개의 주요 부족들 혹은 5부로 나누어졌음을 알고 있다.³⁴⁾

32) 위의 책(2014), 24쪽.

33) 김종수 외, 앞의 책(2014), 34쪽.

34) “The religion of the Koguryō appears to have had an astral element similar to that of more nomadic steppe peoples from which they themselves were most probably

5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와 마이클 세스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나, 마이클 세스는 고구려의 제천행사 대신 종교를 다루며, 고구려가 한반도 계통의 부족민이 아니라 스텝지대 유목민 계통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음을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더 나아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한민족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발해의 통치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국가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불렀고, 많은 지배층 가문들이 자신들의 근원을 고구려에 두었다. 그러나 발해의 백성들은 현대 한국 민족들의 근원이 되었던 집단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집단들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해는 고구려와 흡사하다. 고구려는 대부분 한반도 밖에 위치했으며 현대 한국인들의 조상이 아니었던 많은 인종 집단을 가지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할 것이다.³⁵⁾

고구려와 발해가 한민족의 선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지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영토가 한반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적 관점에서 고구려의 언어가 한반도의 언어와 달랐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심지어 고구려의 언어조차도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했던 언어와 매우 달랐던 것 같다. 아마도 현대 한국어와는 더욱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역사가들은 한국사의 일부로서 고구려는 포함시키고 발해는 배제시키는 것이 비논리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고구려보다 더 멀리, 발해의 인구나 국도(國都)는 (네 개의 경京 중 세 개의 경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외부에 놓여 있었다.³⁶⁾

descended. It also included a "Spirit of the Underground Passage," and worship of rivers and other natural features. We also know that they were divided into five main tribes or clans: the Yōnno, Chōllo, Sunno, Kwanno, and Kyeru." Michael Seth, 앞의 책(2011), 21쪽.

35) "The rulers of Parhae often referred to their state as the successor to Koguryō, and many of the leading families traced their ancestry to that state. But Parhae's population was predominately of groups different from those that evolved into modern ethnic Koreans. In this respect it resembled Koguryō, a state that lay mostly outside of the peninsula and that most likely had many ethnic groups that were not ancestral to modern Koreans." 위의 책, 69쪽.

36) "In fact, even the Koguryō language appears to have been quite different from that spoken in Silla and Paekche and perhaps less closely related to modern Korean. Some historians, therefore, regard it as illogical to include Koguryō and exclude Parhae as part of Korean history. But to a greater extent than Koguryō, Parhae's population base and its primary capital (as well as three of four of its secondary capitals) lay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위의 책, 69쪽.

그렇다면 마이클 세스가 볼 때 진정한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는 민족성과 언어를 근거로 하여 한민족의 조상은 삼한에 거주했던 부족민이라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논한다.

마한과 진한은 동일한 또는 흡사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진한과 동일한 주거 형태와 관습을 공유했던 변한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삼한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현대 한국어의 직계조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general assumption)이 있어 왔다. 그러한 주장에 증거는 없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민족성과 언어라는 관점에서 삼한이 초기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강 주변의 작은 마을에 있는 반(半)수혈식 주거지에 살았다. 그 강 주변에서 그들은 쌀, 보리 및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었다.³⁷⁾

이에 반해 교과서는 어떤 측면을 부각하여 발해 역사를 기록하는지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당이 회유책을 펴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고구려의 유민들은 대조영을 중심으로 뭉쳤다. 대조영은 천문령까지 추격한 당군을 물리치고 만주 동부의 고구려 옛 땅인 동모산에 이르러 발해를 세웠다(698).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의 옛 땅에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발해는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여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옛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다. 또한 토기, 성곽, 고분 등 여러 면에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였다.³⁸⁾

교과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현대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단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점을 세 가지 이유를

37) “The Mahan and the Chinhan spoke the same (or similar) languages, but the Pyŏnhan, who shared the same dwellings and customs as the Chinhan, were said to have spoken a different language. The general assumption has been that the languages spoken by the Samhan were directly ancestral to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while there is no proof of that assertion, it seems a reasonable one. Thus in terms of ethnicity and language the Samhan can be said to be early Korean peoples. Most lived in semisubterranean homes in little villages near river terraces where they were able to grow rice, barley, and other crops.” 위의 책, 23쪽.

38) 김종수 외, 앞의 책(2014), 57쪽.

들어 분명히 진술하였다. 첫째, 발해를 세운 주체는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민이며, 둘째,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고, 셋째, 외교적으로도 고구려를 잇는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이클 세스가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구려와 발해가 현대 한국인들의 조상이 될 수 없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교과서는 그러한 현실적인 비판과 토론의 장이 열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없이 전해 내려오는 사실만 전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6단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³⁹⁾ 정작 교과서 본문에는 아무런 대안도 서술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본문과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이에 대한 대안을 녹이고 풀어서 서술해야 할 것이다.

V. 가야

한군현,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에서는 여러 해석의 차이를 보였던 교과서와 마이클 세스의 『한국사』는 가야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점을 보인다. 먼저 가야의 성립 과정을 서술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변한 지역에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구야국(狗邪國)이 질 좋은 철제품을 바탕으로 해상 교역을 통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이후 해상 교역이 위축되고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으로 해상 교역 체계가 붕괴하자 구야국의 경제 기반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구야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여러 가야 소국이 세워졌으나 강력한 중앙 집권력을 갖춘 국가가 출현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구야국을 이은 금관가야가 세력을 회복하여 연맹을 결성하였는데,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가야는 4세기 중후반에, 백제,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39) 위의 책, 424쪽.

가야의 시작을 구야국으로 보고 있으며, 금관가야가 그 세력을 이어 전기 가야 연맹을 결성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했음을 서술했다. 즉, 가야는 한반도에서 순수하게 자생하고 발달했으며 금관가야연맹으로 이어져 존속해왔음을 말해준다. 다음은 마이클 세스의 글을 살펴보자.

가야는 일본의 왜(倭)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아마도 가야 지역의 풍부한 철 매장량을 토대로 무역을 했을 것이다. 최근의 대가야 왕릉의 고고학 발굴로 인해 가야가 부유한 국가임이 드러났다. 고분의 크기와 왕족의 상당한 부(富)는 (가야가) 매우 발달된 사회였음을 시사한다. 왕들이 단지 지역의 추장 정도가 아니라 노동력과 자원을 장악했던 막대한 권력을 지닌 고위층의 통치자였던 것이다. 비옥한 답지(沓地) 철 매장량, 그리고 일본 중앙에서부터 중국 북부까지 걸친 고대 무역로에 있었던 국가의 위치가 이러한 부의 원천이었다.⁴⁰⁾

가야에 대한 첫 소개를 구야국이 아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했다는 차이 외에는 철 생산과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은 공통점을 지닌다. 나아가 마이클 세스는 가야가 부유한 국가라는 점과 왕이 강력한 통치자였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가야 연맹의 변천과 멸망에 관해 비교할 것이다. 먼저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金官伽倻)는 백제 및 왜와 연대하였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쇠퇴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 가야 연맹은 붕괴되고, 낙동강 동쪽의 가야 지역은 고구려의 후원을 받는 신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대신 경상도 내륙이나 경남 서남부의 소국들이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 가운데 고령의 대가야가 농업 생산 기반과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대가야는 주변 소국을 복속시켜 맹주권(盟主權)을 확립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중국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40) "The Kaya had close connections with the Wa of Japan, probably involving trade based on the Kaya area's rich iron deposits.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the royal tombs of Tae Kaya reveal a wealthy state. The size of the mounded tombs and the considerable wealth of the royal family indicate a highly developed society where the kings were not merely local chieftains but rulers of exalted status with considerable power to command labor and resources. The fertile rice land, the existence of iron deposits, and its location on an ancient trade route that reached from central Japan to northern China were the sources of this wealth." Michael Seth, 앞의 책(2011), 30쪽.

그러나 가야는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6세기 초에 백제는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경남 서부로 진출하였다. 신라도 금관가야를 정복하며 가야 병합에 나섰다. 이로 인해 가야 소국은 점차 백제와 신라에게 분할 점령되었고, 결국 대가야마저 신라에게 정복당하였다(562).

가야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멸망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신라 등으로 건너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⁴¹⁾

교과서가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에서 후기 가야 연맹을 결성한 대가야로 변모하는 모습과 가야의 멸망에 대해 여러 이유를 진술한 반면, 마이클 세스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가야의 말기를 진술했다.

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가야국들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생존 가능한 정치 체제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장하는 신라의 희생물이 되었다. 신라는 532년에 본가야를, 562년에 대가야를 흡수했다.⁴²⁾

그러나 교과서가 가야와 왜(倭)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누고 초기에 금관가야가 왜와 연대했고, 대가야의 멸망 이후에는 가야인들이 왜로 건너갔음을 서술한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가야가 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장으로 가야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왜의 정체성은 한반도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왜(倭)는 누구였을까? 전통적 기록에서 그들은 단순히 일본인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일본인 민족 집단이 그렇게 이른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반도와 일본열도 양쪽 모두의 사람들은 다양한 부족 문화들로 구성되었다. 남만주와 한국의 부족민들이 겹치듯, 한국 남해안을 따라 거주했던 사람들은 일본 서부의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나중이야 구별되고 명확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등장했던 것이다.⁴³⁾

41) 김중수 외, 앞의 책(2014), 46쪽.

42) "Despite their prosperity, the Kaya states were too small to remain viable political entities. Consequently, they fell victim to an expanding Silla that absorbed Pon Kaya in 532 and Tae Kaya in 562." Michael Seth, 앞의 책(2011), 30쪽.

43) "Who were the Wa? In traditional accounts they are simply equated with the Japanese. It is highly unlikely, however, that a definable Japanese ethnic group

물론 마이클 세스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Mimana)와 가야가 동일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고대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그러나 두 집단의 정치적 발달 과정을 비교해볼 때 가야와 왜가 같은 민족 집단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각각) 존재했다기보다는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에 (긴밀히 연결된) 연속체(連續體, continuum)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서부의 왜는 대한해협 양쪽 지역에 다 살았을 것이며, 그들은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심지어 왜와 가야는 같은 민족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발달 과정이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 정도로 흡사하여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⁴⁵⁾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마이클 세스는 고조선과 한군현,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가야에 대한 역사 해석을 교과서로 대표되는 한국사 통설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는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한다. 한편, 마이클 세스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이전에는 독특하게 한국적이라고

existed at such an early date. Rather, the peoples of both the peninsula and the archipelago consisted of various tribal cultures. The Wa probably lived in western Japan and perhaps on both sides of the Korean Strait. Just as tribal peoples in southern Manchuria and Korea overlapped, so the peopl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Korea were probably linked with those of western Japan. Only later did separate and distinct Korean and Japanese peoples emerge.” 위의 책, 23쪽.

44) Michael Seth, 앞의 책(2010), 31쪽.

45) “Thus rather than the existence of Korean and Japanese peoples there was a continuum of peoples and cultures. The Wa of western Japan, for example, may have lived on both sides of the Korean Straits, and they appeared to have close links with Kaya. It is even possible that the Wa and Kaya were the same ethnic group. The fact that Japanese and Korean political evolution followed similar patterns is too striking to be coincidental.” 위의 책, 32쪽.

할 수 있는 통일된 집단이나 일관된 문화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에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다.

둘째, 교과서는 한군현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구려의 성장을 저지하고 동예와 옥저를 통제했으며,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 쫓겨나 소멸된 존재로 묘사하여 일부 긍정적인 면과 여러 부정적인 면을 기술했다.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한군현을 통해 비로소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석함으로써 한군현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셋째, 교과서는 고구려의 역사뿐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설명한다. 한편, 마이클 세스는 지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영토가 한반도 밖에 있었고, 언어적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가 한반도의 언어와 매우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도 고구려는 한반도 계통의 부족민이 아니라 스텝지대 유목민 계통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음을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가 가야와 왜(倭)를 분명히 구분하여 서술한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가야가 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장으로 가야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발달 과정의 비슷한 패턴을 근거로 왜와 가야는 같은 민족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지적한다.

대체적으로 교과서는 한국 고대사의 기존 내용에 대하여 큰 비판의식 없이 많은 사실을 관습적으로 수용하고, 과거의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많은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3자의 눈으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과서 집필자는 원사료를 토대로 역사를 서술한 한국 고대사 분야의 공인된 전공자이며, 마이클 세스는 제2차 문헌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한 한국 현대교육사 전공자이므로, 마이클 세스의 역사 서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자가 마이클 세스의 관점으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볼 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현실적인 비판과 토론의 장이 열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전해 내려오는 사실만 전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6단원에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미래를 위한 노력이란 장에서 따로 한·중·일의 역사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교과서 본문에는 아무런 비판과 대안도 기록하지 않았다. 향후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고대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교과서를 통해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물론 마이클 세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관점이 더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 마이클 세스의 관점이나 서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의 관점을 소개하여 비교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그에 대한 비평과 대안은 또 다른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차후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상)』. 교육부, 1996.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여호규,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이만열, 『우리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_____,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 2』. 천재교육, 2012.
최영애, 『한자학강의』. 통나무, 2000.

Seth Michael,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1.

2. 논문

- 이성규, 「한국 고대 국가의 한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집, 2003.
최준채,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교육부, 2014.
판카즈 모한, 「서구학계와 한국학계의 한국 고대사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2집, 2011.

3. 비디오 자료

Duncan, John, "Myths and Truths about Premodern Korea,"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Public,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mPEcszPd9T8>

국 문 초 록

이 글에서는 마이클 세스의 저서들 중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고대에서 현재까지(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외국인의 역사 서술을 고찰했다. 외국인 학자에 의해 가장 최근에 출판되었으며 한국사 개론의 성격은 지닌 이 책은 과거부터 최신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작일 뿐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으로 한국사를 서술한 독특한 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마이클 세스와 같은 미국 학자의 저서를 토대로 한국사를 살펴보려는 것은 그의 학문이 국내 학자의 학문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한국을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마이클 세스는 고조선과 한군현,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가야에 대한 역사 해석을 교과서로 대표되는 한국사 통설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는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한다. 한편, 마이클 세스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이전에는 독특하게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된 집단이나 일관된 문화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에 고조선이 현 대한민국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다.

둘째, 교과서는 한군현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구려의 성장을 저지하고 동예와 옥저를 통제했으며,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 쫓겨나 소멸된 존재로 묘사하여 일부 긍정적인 면과 여러 부정적인 면을 기술했다.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한군현을 통해 비로소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석함으로써 한군현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셋째, 교과서는 고구려의 역사뿐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설명한다. 한편, 마이클 세스는 지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영토가 한반도 밖에 있었고, 언어적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가 한반도의 언어와 매우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도 고구려는 한반도 계통의 부족민이 아니라 스텝지대 유목민 계통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음을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가 가야와 왜(倭)를 분명히 구분하여 서술한 반면

에, 마이클 세스는 가야가 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장으로 가야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발달 과정의 비슷한 패턴을 근거로 왜와 가야는 같은 민족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지적한다.

대체적으로 교과서는 한국 고대사의 기존 내용에 대하여 큰 비판의식 없이 많은 사실을 관습적으로 수용하고 과거의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많은 반면에, 마이클 세스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3자의 눈으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7. 6. 17.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한군현(漢郡縣, Chinese Commanderies), 고조선(古朝鮮, ancient Joseon), 고구려(高句麗, Goguryeo), 발해(渤海, Balhae), 교과서(教科書, history textbook)